

## 눈물 너머의 희망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27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2010년 통합 총회 이후 두 번째 총회입니다. 이번 모임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이 기구의 새로움을 상기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성취,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리는 이 축제의 시간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주최 측인 태국 그리스도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인내와 적극적인 증언은 우리 전체 교제 공동체에 본보기가 되며 진정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중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이야기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으로 이해하는 비전을 제시한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규범을 거스르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대와 환영을 베푼 이들을 기렸습니다. 그들은 주변 세상의 필요를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가 되어 그것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이사야 43:18).

150년의 역사적 증언과 15년의 새 출발을 맞은 WCRC의 대비는, 그 길목의 역사적 이정표와 선배들의 인내, 극복된 도전들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과거의 교훈이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를 비추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정의의 추구자로 부르심을 함께 응답합니다.

조상들의 부르짖음이 우리를 향해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창조하실 미래를 향해 (로마서 4:17).

### 세대를 위한 울부짖음

"...우리를 둘러싼 이처럼 큰 증인들의 구름이..." (히브리서 12:1)

세대를 가로지르는 울부짖음은 기쁨의 눈물이자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행동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증언과 함께한 눈물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교회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마가복음 12:31)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흘린 눈물입니다.

아크라 신앙고백에 담긴 개혁주의 가족의 울부짖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울부짖음, 자유와 변화를 위한 울부짖음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재세례파 박해와 같이 사람과 공동체에 고통을 초래한 행동에 가담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박해가 복음에 대한 배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니케아 신조 제정 1700주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일치에 대해 울부짖는 그리스도인 일치의 사명(요한복음 17장)을 세울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이 노력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전 세계 공동체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설계가 엮어낸 태피스트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와 공동체에서 온 형제자매로서, 우리를 형성하고 다듬은 장소들의 현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다양성 속에는 축하해야 할 차이들이 있지만, 때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나 무시해야 할 도전으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참여를 위해 여전히 노력하는 많은 이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우리의 다양성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그들이 가져오는 지혜를 기뻐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며, 그들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받아들여진 것 이상의 열망을 간절히 갈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었고, 이제 함께 교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 세상 속 우리의 증언,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리더십과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선물을 가져오는 여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증언은 확고하며, 교회와 이 교제 안에서 그들의 온전한 존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함께 하겠다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함께 맞이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의 존재를 환영하며, 그들의 참여를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이로부터 받을 때 교제 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 현존하시고 보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잔혹함과 인간성 부정 속에서 살아온 원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땅과 강과 바다와 맺은 유대를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식민주의, 자연 자원의 약탈, 땅과 사람들의 파괴에 맞서 계속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혜로부터 계속 배웁니다. 우리는 그들의 저항과 회복력 속에서 그들과 연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 총회에서 메노나이트 세계 회의와 공통의 기반과 상호 용서를 발견하여 정의, 평화, 창조물의 온전함을 위한 행동에 함께 걸어가고 힘을 합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뻐합니다. 모든 이(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이 사랑과 자비를 증거합니다.

### **걱정과 근심을 고백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버리자”(히브리서 12:1)

세상의 현실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거스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병폐로 인해 사람과 공동체에 상처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마땅히 기울여야 할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가 소수에 의해 장악된 이 시대에 제국의 유산과 존재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그 문제들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에 대한 피로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의 열망에 도전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부르심은 조건 없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신앙 전통이 공존하는 세상을 헤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신앙 전통의 형제자매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는 교제 자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교제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지 못했고 그들의 부재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왜 일부는 꾸준히 참여하지 않는지, 왜 다른 이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고민하며, 교제 안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제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빠진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모든 이를 식탁에 초대하여 빵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입니다.

### **교제하는 삶으로의 부르심**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자”(히브리서 12:1)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는 또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선 개혁자들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서로에게 해야 할 헌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제, 친교, 공동체로서의 장소인 교제 안에서 살기 위해 –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 4:14).

함께함이 우선입니다. 모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능력을 키울 것이며,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대화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열려 있어야 하며, 교제하는 이들에 대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확실한 이 시기는 교회 안에서 일치와 다양성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선물이며, 서로에게서 배우기 위해서는 만나는 이들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 배경은 중요하며, 우리의 문화적 역동성이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형성하고 다듬습니다. 일률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 드러나는 온전한 모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함께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와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봄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때에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WCRC는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우며, 정의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과의 연결과 성령의 삶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은 우리의 영성을 깊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갱신에 대한 부르심은 할 일이 너무 많은 이 시대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기도를 포함하는 영적 돌봄의 실천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 용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며”(히브리서 12:2)

예언적 증언의 부르심은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되었으며 계속 개혁 중이며, 21세기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50년 전 개혁자들은 안락함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역시 불의가 정상화되고 용인되는 시대에 대안적 서사가 되기 위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는 여전히 파괴적이고 변혁적이며, 교회가 우리 주변 세상의 증가하는 필요를 해결하도록 부르는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행동하는 것이며,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동(미시오 데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실천하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압받는 자에게 해방을, 상한 마음을 가진 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제 공동체가 되라는 부르심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듣고 목격한 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 모든 목소리가 포함되도록 우리의 통치와 구조를 탈식민화할 필요에 주의를 기울일 용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의 선물을 세심하게 받아들일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꽃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확장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 기도와 교제 안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한 비전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니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시편 46:10) 우리의 행동은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요함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모든 이가 양육받고 자유로운 미래, 교회가 제국의 권력으로 인해 정상화된 고통을 해체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성을 유지하며 행동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중심을 둔 이 교제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어제와 오늘의 눈물을 넘어서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합의에 의해 승인됨